

'진안고원 속 백제의 흔적' 학술대회

진안역사박물관 국보순회전 연계 개최... 옛 백제 영역이었던 진안·백제 문헌기록 재조명

국립익산박물관과 진안군이 주최하고, 국립군산대학교박물관이 주관하는 '진안고원 속 백제의 흔적' 학술대회가 20일 진안 문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과 진안역사박물관, 국립익산박물관이 주최·주관하여 진안역사박물관에서 11월 30일까지 개최되는 2025 국보순회전 '백제명품, 백제문양전'과 연계한 학술대회로, 옛 백제의 영역이었던 진안지역과 고대 국가 백제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문헌기록, 유적 조사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마련되었다.

'진안고원 속 백제의 흔적' 학술대회에는 기조강연과 5개의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국립군산대학교 객장근 교수의 '진안군 교통망의 재편과정과 그 의미'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제1주제 전북대학교 김병남 교수의 '문헌을 통해 본 진안과 백제', 제2주제 국립군산대학교박물관 조명일 학예연구사의 '진안군 고대 성곽의 분포양상과 그 의



국립익산박물관과 진안군이 주최하고, 국립군산대학교박물관이 주관하는 '진안고원 속 백제의 흔적' 학술대회가 20일 진안 문화의 집에서 개최됐다.

의', 제3주제 단국대학교 엄기표 교수의 '진안군의 불교문화와 백제', 제4주제 조선문화유산연구원 차인국 팀장의 '기아를 통해 본 진안과 백제', 제5주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이문형 교수의 '분묘유적을 통해 본 진안'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객장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라문화유산연구원 박영민 연구위원, 전주대학교박물관 육창민 학예연구사, 온문화유산정책연구

원 노기환 원장, 국립광주박물관 최홍선 관장,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전상학 실장 등 토론자들과 발표자들간에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종합토론이 펼쳐졌다.

진안군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지역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조사연구와 보존·계승에 지속 노력하여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진행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11월 20일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1차 본회의에서는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과 김광훈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장정복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어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장수군 제안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 「동화면 「땀길」, 관리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의결 하였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의 활동 등을 위해 본회의 휴회에 들어갔다.

바로 이어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국희)에서는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집 부서와 읍·면, 장수한우지방공사를 대상으로 2025년도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섭)를 통해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최한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군과 의회가 한마음으로 협력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우리 군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농촌유학 거주시설 ‘꿈터마을’ 입주민 간담회

진안군은 지난 19일 부귀면 다룻가페에서 농촌유학 거주시설 ‘꿈터마을’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입주 이후 생활 만족도와 개선 필요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진안군수를 비롯해 가족행복과장, 부귀면장, 입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농촌유학을 통해 진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오가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꿈터마을’은 부귀면 신거석길에 위치한 9개동 18세대 규모의 농촌유학거주시설로, 현재 14가구 42명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8월 입주 이후 군은 지속적인 시설



점검과 하자보수를 실시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간담회에 앞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총 14세대 중 11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11명 전원이 ‘만족 이상’을 선택해 농촌유학 생활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시설원에 분야 지원사업 평가 ‘우수’

무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시설원에 분야 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15개 시도, 46개 시군구의 2024년도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시설원에 분야 지원사업은 이상 기후 속에서 원예작물이 안정적으로 생육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

하는 것으로, 온도나 습도 등을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첨단 온실을 구축해 작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군은 최근 3년간 16농가에 양액재배 시설과 무인방제기, 복합환경관리시설 등 4억 7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중도 포기자 없이 높은 예산 집행과 사업 홍보, 농가와의 소통, 현장관리 등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호평을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환경농업대학 수료생 58명 배출

진안군은 20일 '제25기 진안환경농업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

올해 운영된 두개 과정(사과·치유농업)은 2월부터 11월까지 약 70시간에 걸쳐 이론 교육과 실습, 관내의 현장견학, 현장진설립 등이 포함된 집중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치유농업과정 중 19명이 민간자격증 ‘꽃차 소믈리에’를 취득하는 성과도 있었다.

또한 지난해 수료생과의 간담회를 통해 교육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커리큘럼을 구성한 결과, 전문농업인 58명을 배출하는 좋은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지난 2001년부터 25년 동안 약 2,370명의 분야별 농업전문가를 배출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더 의미깊은 시간을 가졌다.

수료식은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수료생 및 이수생 등 총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우수교육생으로는 △최우수상(농촌진흥청장) 박희재(진안읍) △우수상(진안군수) 구인근(동향면), 김낙현(부귀면), 백성천(백운면), 이상철(진안읍) △공로상(진안군수) 박명재(주천면), 문영배(성수면)가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무주군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장 3년간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실제 거주하는 18~39세(1985년~2008년도 출생자) 청년 농업인 중, 영농기간이 3년 이하(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준)인 군민이다.

신청은 오는 12월 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x.agrix.go.kr)을 통해 가능하며, 서면 평가와 면접,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부터 영농정착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